

〈남가록(南柯錄)〉의 하층여성영웅 천하백 연구

- 가부장제 질서 내 위상 정립 과정을 중심으로 *

박혜인**

〈차 례〉

1. 서론
2. 〈남가록〉 속 천하백의 위상 변화 양상
 - 1) 여산적 출신의 첩: 제한되고 불안정한 자리의 획득
 - 2) 대도독 출신의 부군(府君): 젠더·계층의 전도와 위상 공고화
3. 하층여성영웅의 위상 정립 과정
 - 1) 영웅적 수행 능력의 축적과 전환
 - 2) 상층 권위 및 규범의 전략적 전유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남가록〉의 후반부에 활약하는 천하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층계급의 여성영웅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얻고 위상을 공고히 해가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천하백은 작품 속에서 옥녀산 일대에 산적으로 있던 세 자매 중 하나로, 가부장적 체제 밖 영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들은 동시에 ‘영웅과의 결연을 원하는 여성’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어 있기에, 마지막 포상 또한 4석 중 최석홍, 석친장, 황석태의 잉첩 자리로 마무리된다. 이때 첩은 ‘여산적’이라는 하층계급의 여성영웅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 편입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로 기능한다. 그뿐 아니라 그녀

* 본고는 2025년 11월 22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32차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발표문 중 2장은 이후 주제를 확장하여 별도 논문으로 구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토론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송혜란 선생님과 부족한 논문을 세심하게 읽고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강사

들의 출신으로 인해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불안한 자리이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천하백은 '상공의 첩'이라는 기존의 위치를 지켜내면서도, 자신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대체하는 모습도 보인다. 남편인 최석홍이 세상을 떠난 뒤, 천하백은 그를 대신해 대도독이 되어 3석의 구원자이자 통솔자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녀의 활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두 공주와 3석의 사죄를 받으며 가부장제적 사회 속 온전한 편입에 성공한다. 동시에 남편 최석홍의 위상을 계승하게 된다.

이처럼 <남가록>천하백은 여도적에서 영웅의 첩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웅 자체로 상승하며 가부장적 사회 속 젠더/계층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해간다. 이를 위해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웅적 능력을 성장시켜 도약의 기반으로 삼는 한편, 남편과 황제라는 타인의 권위를 힘입고 열이라는 규범을 전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천하백이 기존 사회 속에서 수용될 수 없는 하층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영웅'으로 수용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천하백은 여산적 출신이라는 한계를 지닌 채 첩의 자리로 편입되지만, 후반부에서 열을 수행하고 대도독의 역할을 계승함으로써 조력자적 영웅의 형상을 넘어선다. 그의 '열'은 단순한 체제 순응이 아니라 체제 내 자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행으로 재맥락화되며, 상층 권위와 규범을 전유하는 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 결과 천하백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귀속되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념에 균열을 가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남가록>은 하층여성인 '영웅'으로 승인될 수 있는 서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 남가록, 한문장편소설, 천하백, 하층여성영웅, 하층여성, 여성영웅, 여성인물

1. 서론

<남가록>은 최만성(崔晩成)에 의해 지어진 한문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4석(四石)으로 불리는 네 영웅인 최석홍, 석천장, 석화주, 황석태가 남가국을 구원하고 국가의 중신이 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조용호를 통해 처음 소개된 이후,¹⁾ 흥미성이 강조되는 군담,²⁾

불교 중심의 신마소설적 면모,³⁾ 음사소설적 면모,⁴⁾ 꺾진한 묘사와 기법적 세련미⁵⁾ 등의 특징이 밝혀졌다. 특히 소설론과 관련하여 최만성의 서문이 많이 주목받기도 했다.⁶⁾ 비록 그 뒤로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남가록〉만의 독특한 면모만 보더라도 이 작품은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가록〉의 인물 또한 그중 하나이다. 이 작품에서는 다른 소설에서 잘 볼 수 없는 양상의 인물이 다수 존재한다. 그에 따라 형제/자매 단위의 복수 영웅, 요신(鯨神)이나 용왕과 같은 비인간 존재, 또한 주인공과 비슷한 능력의 대적자 등이 선행 연구를 통해 많이 언급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남가록〉 인물에 대한 연구는 이 작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본고가 주목한 인물은 작품 후반부에서 주로 활약하는 하층계급 출신의 여성영웅 천하백이다.

천하백은 옥녀산 등지 산적이었던 세 자매 중 하나로 4석의 수하에서 활약하다가 그들의 첩이 되는 인물이다. 이들 자매는 세 명이지만 마치

-
- 1) 조용호, 「〈南柯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355~389쪽.
 - 2) 강경미, 「『南柯錄』의 서술상 특징과 작가의식」, 『우리어문연구』 50, 우리어문학회, 2014, 23쪽.
 - 3) 조용호, 「한문소설 〈남가록(南柯錄)〉에 나타난 종교사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287~314쪽; 최윤희, 「남가록의 유형성 탐색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314~315쪽.
 - 4) 강경미(2014), 앞의 논문, 28~29쪽.
 - 5) 조용호(2002), 앞의 논문, 378쪽; 「고전소설 南柯錄의 비교문학적 연구 -중국소설 三國演義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5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111~144쪽; 「고전소설 속 서사적 지연의 제 양상」, 『韓國古典研究』 4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13~149쪽.
 - 6) 장예준, 「南柯錄 서문에 나타난 문장론과 소설론의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2015, 221~254쪽; 「19세기 소설론의 장場과 그 담론들 -소설 서문과 평비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129~161쪽.

한 몸처럼 서사 속에서 늘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중 〈남가록〉 전반부에 주로 부각되는 인물은 황석태와 인연을 맺어 그의 잉첩이 되는 첫째 일장홍뿐이다. 이때 천하백은 일장홍의 자매로만 등장하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천하백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진행된다. 강경미에 따르면 “〈남가록〉의 후반부에 보이는 다양한 도술담은 천하백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천하백이 전쟁의 중심에 등장하기 위한 일종의 실마리로 처첩간의 갈등, 오해, 모함의 과정이 서술된다”⁷⁾ 또한 서사의 흐름에 따라 천하백 및 세 자매의 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하층여성’이자 ‘여성영웅’이라는 그녀의 독특한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본고는 천하백을 둘러싼 사건에 주목하여〈남가록〉을 다시 읽어나감으로써 ‘하층여성영웅’의 관점으로 그녀와 관련한 사건들을 다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가록〉 속 하층여성영웅이 어떤 방식으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⁸⁾

2. 〈남가록〉 속 천하백의 위상 변화 양상

〈남가록〉은 군담을 중심으로 서사가 이뤄지는데, 그 속에서 4석은 서로 만나 결의형제하며 여러 조력자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천하백을 비롯한 세 자매는 이러한 과정 중에 처음 등장한 인물로, 작품 속에서 이들 세 자매의 모습은 크게 변별되지 않는다. 일장홍을 중심으로 한 전반부나 천

7) 강경미(2014), 앞의 논문, 21쪽.

8) 〈남가록〉의 이본은 2권 2책의 서강대본이 남아있다. 이는 조용호에 의해 영인본(조용호, 『남가록 연구』, 박이정, 2009, 1~329쪽.) 및 해석본(최만성, 『남가록』, 조용호 옮김, 박이정, 2008; 최만성, 조용호 옮김, 『남가록, 회화나무 아래서 봄꿈 한 자락』, 지만지한국문학, 2024, 1~641쪽)이 나왔다. 본고에서는 조용호(2024)의 해석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백을 중심으로 한 후반부 모두에서 세 자매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로 나온다. 작품 속에서 이들과 관련한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

- ㉠ 양갑성으로 가던 황석태가 옥녀산 일대 세 산적에게 길을 빌리려 함
- ㉡ 세 자매가 황석태와 겨루어 패하고, 일장홍은 그에게 연심을 품음
- ㉢ 석태가 양갑성에서 달달국의 공성계에 빠짐
- ㉣ 세 자매가 계교로 양초를 전달하나 함께 포위된 채 그의 수하가 됨
- ㉤ 최석홍이 황석태 일행을 구하고, 석태가 세 자매에게 양갑성을 맡기고 경성으로 진격함
- ㉥ 황제의 사인으로 일장홍은 황석태, 금옥저는 석천장, 천하백은 최석홍의 인척이 됨
- ㉦ 천하백의 남편 최석홍이 선탈하여 세상을 떠남

〈후반부〉

- ㉧ 황석태의 기첩 진옥이 일장홍에게 앙심을 품고 세 자매를 해하려 함
- ㉨ 최석홍이 사후 천하백이 색을 폐하고 남편이 쓴 〈병학요람〉을 익히며 존경을 받음
- ㉩ 진옥이 무당 추월과 계교를 베풀어 공주들이 천하백의 행실을 의심하게 만듦
- ㉪ 천하백이 〈서상기〉와 옥환의 일로 정절 모해를 받고 죄인으로 자처함
- ㉫ 진옥의 모함으로 인해 황석태와 석천장이 일장홍과 금옥저를 멀리함
- ㉬ 송기척이 반란을 일으키자 3석이 나아가 싸우나 패함
- ㉭ 천하백이 대도독이 되어 3석을 구하고 송기척의 반란을 진압함
- ㉮ 세 자매가 3관의 장군이 되어 옥녀산 등지로 돌아감
- ㉯ 3석이 염왕의 초대로 염부에 가서 재우, 장화화, 요신과 다시 싸움
- ㉰ 천하백이 최석홍의 영령을 만나고 그에 따라 염부에서 3석을 구함

- ㉠ 3석이 염부에서 실상을 듣고 와 천하백에게 사죄하고 진옥을 처단함
- ㉡ 천하백 자매가 집으로 돌아오고 공주의 사죄를 받음

옥녀산의 세 자매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함께 움직이며 비슷한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다만 전반부에서 일장홍이 그러했던 것처럼, 천하백의 경우 후반부 서사의 주인공이 되면서 좀더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다른 자매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산적(㉠)이었던 천하백은 서사의 흐름에 따라 황석태의 수하 장군(㉡)으로, 최석홍의 첩(㉢)으로, 부정을 저지른 죄인(㉣)으로, 대도독(㉤)으로, 3관을 지키는 장군(㉥)으로, 염부의 구원자(㉦)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변화는 ‘천원옥진군(天元玉眞君)’, ‘꽃’, ‘낭자(娘子)’, ‘부인(夫人)’, ‘천한 것’, ‘부군(府君)’ 과 같은 다양한 호칭과 함께 하층여성영웅으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구성해나간다. 여기에서는 천하백이 전/후반부 마지막에 ‘성취’한 위상에 따라 둘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산적 출신의 첩: 제한되고 불완전한 자리의 획득

〈남가록〉의 전반부 서사는 세 여장군이 4석을 만나 군공을 세우고 그 포상으로 그들의 잉첩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온다. 서사 초반의 세 자매는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옥녀산 일대에 웅거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옥녀산 길은 갑성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지나가기가 매우 험난한 길이었다. 이 산은 적송산 및 야사산과 이어져서 꾸불꾸불 수백 리에 걸쳐 뻗어 있었다. 그 산들의 여러 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는데, 가운데는 열려있고 밖은 봉합되어 있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비록 맑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다 하더라도 본디 강도의 출몰을 근심할 만하거늘, 하물며 전쟁의 외중에는 어떨겠는가? 옥녀산과 적송산과 야사산에는 세 명의 여장군이 웅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매들인데, 첫째는 화화태세(花花太歲) 일장홍(一丈紅)이고, 둘째는 월하금표(月下錦豹) 금옥저(金玉貯)이며, 막내는 춘면호(春面虎) 천하백(天下白)이었다. (중략) 그들은 3, 4천의 군사와 말을 모아 세 곳의 좁은 입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남가군에 속하지도 않고 달달군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자칭 천원옥진군(天元玉眞君)이라고 했다. 그래서 남가군과 달달군은 물론 도적을 잡아야 하는 관군도 감히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날 석태가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수백 마리의 소라들이 모여 있다가 큰소리로 외쳤다. “어서 길을 사는 값을 내놓이라.” 석태가 말했다. “꽃을 살 돈은 있지만, 길을 살 돈은 없다.”⁹⁾

본문에서 세 자매의 등장은 험난한 옥녀산 일대에 대한 소개와 함께한다. ‘가운데는 열려있고 밖은 봉합되어 있는 형국’인 옥녀산은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처럼 나온다. 이는 “남가군에 속하지도 않고 달달군에 속하지도 않은 제3의 존재¹⁰⁾인 이들의 모습과도 같다. 즉 체제 밖에 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다. 스스로 “천원옥진군”이라 칭하면서 몇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옥녀산 일대에 웅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기존 사회질서 속에 ‘포섭되지 않은’ 공간의 주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그것들이 기존 질서 내에서 ‘승인 받지 않은’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가국 내에서 그녀들은 기본적으로 옥녀산에 출몰하는 강도이며, 관군이 잡아야 할 산적일 뿐이다. 더 나아가 그녀들은 ‘하층의 여성’이

9) 〈남가록〉, 301~304쪽.

10) 이에 대해 조용호는 3여장이 “두 세력 간의 양자 대결이라는 구도에서 약간 비켜난 상태로 서사에 등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더 나아가 3여장이 황석태와 싸우다 반하여 그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종전후에는 3석과 혼인하는 모습이 유비가 손권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그 인연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며, 〈삼국연의〉에서의 손권의 역할을 〈남가록〉에서 3인의 여장이 맡는다고 보았다. 조용호(2011), 앞의 논문, 127~128쪽. 다만 본고는 이들이 이후 황석태의 휘하 장수로 활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협력관계보다는 완전한 조력자로 돌아선 것이 더 맞다고 본다.

라는 점에서 성적대상화되며 조롱받는다. 황석태와 만나는 장면에서 그들의 3-4천 군사들은 ‘소리[螺]’로 묘사되며¹¹⁾, 여장군인 세 자매는 꽃이라 호명된다. 이후 그녀들의 무예 또한 황석태에 의해 “사나운 년들이 감히 이렇게 대장부를 가지고 논 것” 혹은 “여자들이 놀아보자고 한 일”로 치부되기도 한다.¹²⁾ 이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의 여산적이라는 위치가 기본적으로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서사 초반부터 드러난 그녀들의 욕망과도 관련이 있다.

자색과 용모와 재주와 기예가 모두 매우 기이하고 절대적이라고 칭해져서, 마음으로는 천하의 영웅을 얻어 시집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찾아 보아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옥녀관(玉女關)의 문설주에 시를 지어 걸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珠勒金鞍白曼馬 옥 굴레 금 안장에 백마를 탄 아름다운 이가
憶卽何日宿農家 어느 날에나 우리 집에서 자게 될까 생각하네.
農家數尺珊瑚樹 우리 집에 있는 높디란 산호수가
苦待春來不放花 봄이 오길 고대하며 꽃도 피우지 못하기에.¹³⁾

영웅적 자질을 가졌지만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녀들의 소원은

11) 여기에서의 ‘소리’라는 용어의 원문은 ‘소충라(小虫羅)’로, 본고에서는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는 조용호의 번역본(최만성(2024), 앞의 책, 303쪽)을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조용호는 “‘소충라(小虫羅)’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지만 문맥과 부수(部首), 뒤에 나오는 ‘라(螺)’자를 참작하면 ‘소리’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 소라는 두껍고 견고한 껍데기에 덮인 연체동물이므로, 투구를 쓴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최만성(2024), 위의 책, 각주 442).

12) “사나운 년들이 감히 이렇게 대장부를 가지고 놀았겠다?” 일장홍 등은 서로 보고 매우 놀라서 쥐처럼 달아나면서 감히 고개를 내밀지 못했다. (중략) 석태가 말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숨씨라는 것은 모기가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을 흔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놀아보자고 한 일을 가지고 대장부가 어찌 마음에 두겠느냐?” <남가록>, 309~310쪽.

13) <남가록>, 302~303쪽.

“자색과 용모와 재주와 기예가 모두 매우 기이하고 절대적”인 자신들의 뛰어난 재능에 걸맞는 자리이다. 그녀들은 이를 천하 영웅과의 결연으로 얻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뛰어난 무예를 갖춘 영웅의 면모를 보기도 하지만, 남성과의 결연을 원하는 시를 문 앞에 걸어두는 등 마치 창투의 기생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제3의 세력이었던 이들이 남가국에 편에 서게 된 계기도 황석태에게 연심을 품은 일장홍 때문이다.¹⁴⁾ 이처럼 옥녀산의 여산적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한 영웅에게 시집가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다.

남가왕이 이윽고 월노(月老)의 인연을 거론하자 천장과 석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화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 절하며 아뢰었다. “신에게는 이미 정해진 짝이 있습니다.” (중략) 용왕이 남가왕에게 말씀했다. “이것은 참으로 하늘이 맺어 준 인연입니다. 또 진실로 사람의 정으로 하늘을 거스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고, 사람을 배신하는 것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과 제후가 아내를 둘이나 셋 두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석 절도시는 제후로 봉해졌으며 조정에 참여해 홀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작위는 자작과 남작의 위에 있습니다. 두 부인을 거느리는 것이 어찌 예에 어그러지는 것이겠습니까? 유씨를 으뜸 부인으로 삼고 제 여식을 둘째 부인으로 삼으면 됩니다. 원컨대 은혜로운 왕께서는 막지 마십시오.” 그러자 남가왕은 더욱 기뻐하면서 천장은 주궁애와 배필이 되게 하고, 석태는 주궁교와 배필이 되게 하고, 화주는 주궁련과 배필이 되게 했으며, 직첩을 주어서

14) 일장홍이 크게 놀라 말했다. “이와 같다면 황 장군은 끝난 거야! 그런데도 우리 자매들이 앉아서 지켜보며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래서 바로 그 동생들과 계책을 의논하니, 금옥저와 천하백이 함께 말했다. “언니의 말은 비록 옳으나, 우리들은 산체에 모인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중략) 굶주린 호랑이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모양이 될까 두려워요.” 일장홍이 말했다. “내가 어리석지만 그런 것쯤은 안다. 그러나 황 장군이 급박한데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워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동생이 이미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남가록〉, 318~319쪽.

각각 숭경부인(崇敬夫人)을 제수했다. (중략) 예를 다하고 바야흐로 임금께 수라를 올릴 때 세 명의 여 장군이 군복을 입고 임금께 배알하며 아뢰었다. “신첩들은 양감성에서 군무를 권섭하고 관리하는 일장홍, 금옥저, 천하백이옵니다. 최 원수의 명을 받아 감성의 일을 권섭하고 관리했습니다. 지금 듣자오니 달달이 이미 멸망해 천하가 태평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신 임금님께 배알하고 겸해 하룻밤 묵으러 왔사옵니다.” 왕이 말씀했다. “너희들은 누구와 더불어 인연을 맺었는가?” 금옥저와 천하백이 아뢰었다. “신첩들은 약속한 혼처가 없사옵니다. 언니 일장홍은 황석태 장군과 더불어 이미 조라지연(簫蘿之緣)을 맺었사옵니다.” 왕이 석태를 불러 물으시니, 석태는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왕이 금옥저와 천하백에게 말씀했다. “너희 언니가 이미 황석태를 받들어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잡기로 했다면, 너희는 장차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해 아뢰었다. “신첩들은 친형제들입니다. 황장군께는 의형제 세 분이 있사운데, 모두 천하의 호걸이며 뛰어난 인물들이옵니다. 그중 한분인 사공은 천하의 누이를 취했고, 두 분은 모두 장가를 들지 않았사오니, 신첩들이 감히 분에 넘치면서도 사사로운 간곡한 정을 아뢰옵니다.” 왕은 꺾꺾 웃으며 용궁의 세 공주에게 장가든 일을 말씀했다. 천하백 등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잠간 잉첩(媵妾)의 반열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평소의 소원이었사옵니다.” 용왕이 말씀했다. “이 일도 역시 쉬운 것이지만, 석 절도사가 이미 두 명의 부인과 혼인했으니 이것을 좋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남가왕이 말씀했다. “이것은 쉬운 일이니, 짐이 처리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답해 말씀했다. “일장홍은 황석태를 모시고, 금옥저는 석천장을 모시고, 천하백은 최석홍을 모시도록 하라.” 왕의 누이는 원래 숙녀의 자태가 있었던 데다가 관저(關雉)와 규목(樛木)의 덕까지 가지고 있으니 일개의 천하백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세 명의 여장군이 각각 머리를 두드리며 은혜에 감사했고, 석홍 등은 모두 만세를 불렀다.¹⁵⁾

옥녀산의 세 자매는 군공을 세운 뒤 “천하의 영웅을 얻어 시집가기를

15) <남가록>, 416~421쪽.

원했”던 자신들의 소원대로 황석태, 석천장, 최석홍과 결연하게 된다. 이들은 서사 처음부터 대장부와의 결연을 목적으로 한 이들의 모습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우나, 그 결연의 방식을 보면 그들이 황실에 직접 등장한 이후에야 ‘남성영웅의 잉척 자리’를 겨우 얻어가는 것으로 나온다.

천하백과 자매들은 양갑산에서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등 4석의 수하로서 이들을 도왔지만, 정작 모든 포상과 혼사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등장한다. 세 자매 중 앞서 서사에서 황석태와 “조라지연(篤蘿之緣)”을 맺었다는 일장홍 또한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황석태의 혼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이는 군담 중에 다른 여성과 결연을 약속한 석화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석화주는 이전 서사에서 유태공의 주선으로 그의 딸과 결연을 약속하게 된다. 이에 그는 논공행상 과정에서도 그 인연을 언급하여 그녀를 정실로 맞이한다. 하지만 이때 황석태는 석화주와 달리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전에 일장홍과 수작하기는 했지만 그녀와의 결연에 대해서는 “나중을 기약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로 미룬 태도와도 이어진다.¹⁶⁾

그 결과 ‘혼처가 없는’ 3석과 “분에 넘치는” 결연을 기대하고 온 3여장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이미 3석 모두가 이미 용왕의 세 딸을 정실로 맞이한 상황이 되고, 그녀들에게 허락된 자리는 자연히 정실이 아닌 첩이 된다. 이는 가문의 규중처자가 아닌 여산적이라는 출신의 한계로 인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첩이라는 자리는 하층여성영웅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 편입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전반부 서사에서 그녀들이 겨우 성취한 ‘첩’의 위치는 언제고 빼

16) “그리고 문설주에 쓴 시를 보고 웃으면서 물었다. ‘봄이 오길 고대하며 꽃도 피우지 못한다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금옥저와 천하백은 언니가 석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석태가 말했다. ‘너희 언니의 마음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나, 군부(君父)의 원수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화촉(花燭)을 밝히는 일을 할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 나중을 기약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는 곧바로 출발할 것을 명해 백마원에 이르렀다.” 〈남가록〉, 310쪽.

앗길 수 있는 ‘불안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는 후반부에 천하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절모해담에서 크게 드러난다.

- ① ‘나와 대적할 자는 용왕의 공주인 주궁교와 일장홍 낭자 정도지. 그런데 공주는 정실부인이니 내가 끝내 어찌할 수 없어. 일장홍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와 같은 반열에 있는 첩인데, 아까 연석에서 내게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한 것은 나를 창녀로 취급한 것 아니겠어? 아주 한스러운 노릇이지.’¹⁷⁾
- ② “오직 용왕의 공주인 주궁교 낭자는 상공의 정실이고, 일장홍은 나와 마찬가지로 상공의 측실이에요. 그래서 정실부인은 그만두고 오직 일장홍만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매가 셋으로, (중략) 또 그들은 본래 옥녀산의 산적들이었는데 우연히 좋은 때를 만나 과분하게 영화를 누리고 귀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우리들보다 몇 층이나 아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망령되게 스스로 높고 크다고 여겨서 부인의 자리에 처하고, 나를 창녀로 대하니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어요?”¹⁸⁾
- ③ “너는 옥녀산에 살던 천한 것인데, 전하의 은혜가 두터워 직첩이 부인으로 있게 했다. 그러니 스스로 순결을 유지하고 사공의 맑은 덕에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옳거늘, (후략)”¹⁹⁾

〈남가록〉의 후반부에서는 천하백을 중심으로 한 정절모해담이 시작된다. 이때 그녀들의 원 출신은 다른 이들이나 자기자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모습을 보인다. 본문 ①에서처럼 황석태의 새로운 첩으로 등장하는 진옥은 자신과 같은 반열인 일장홍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취중에 자신을 업신여겼던 것에 분노하며 그녀를 해치고자 한다. 또한 ②에서 그녀는 황석태의 두 부인, 주궁교와 일장홍에 대한 질투

17) 〈남가록〉, 433쪽.

18) 〈남가록〉, 437쪽.

19) 〈남가록〉, 460쪽.

를 보이면서도 ‘정실부인’이 아닌 측실인 일장홍만을 모해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기생인 자신보다도 ‘몇 층이나 아래’인 자매의 출신을 들먹인다. 또한 ③은 천하백의 정절을 의심한 두 공주의 발화로, 그녀들은 천하백을 ‘옥녀산에 살던 천한 것’이라 비난하며 음란함을 꾸짖는다. 이처럼 ‘산적 출신의 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천하백의 정절모해 사건 속에서 계속 소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옥녀산의 세 자매는 이미 군공을 세운 포상으로 ‘잉첩’의 자리를 얻었지만, 그 자리 또한 출신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이 갈등은 가부장제 체제 속에서 ‘하층여성’인 그녀들이 유일하게 얻는 제한된 자리마저도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불안한 자리임을 보여준다.

2) 대도독 출신의 부군(府君): 젠더·계층의 전도와 위상 공고화

〈남가록〉의 후반부 속 정절모해 사건은 앞서 세 자매가 얻어낸 ‘첩’이라는 자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천하백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전반부 서사는 ‘여산적’이던 그녀들이 영웅과의 결연을 통해 체제 내부로 진입하는 이야기라면, 후반부의 서사는 ‘상공 최석홍의 첩’이라는 기존 위치를 지켜내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에서 천하백이 ‘상공의 첩’이라는 기존의 위치를 지켜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남편 최석홍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남가록〉은 예언에 언급된 4석이 등장해 남가국을 지키고 나라의 중신이 된다는 점에서 복수 영웅적 요소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4석 중에서도 최석홍을 중심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이야기에서 최석홍의 비중은 나머지 3석보다 월등하며, 그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²⁰⁾ 〈남가록〉의 후반부 서사는 이러한 최석홍의 부재와

함께 사건이 시작된다.

천장이 석태와 화주에게 말하였다. “약포(弱浦)에서의 뛰어난 공훈은 사실 사공(司空) 형님께 힘입은 바 크네. 그런데 지금 형님은 하늘로 돌아가셨고, 적은 장화화와 구재우 둘에다가 요사한 날치까지 겹치게 되었으니 진실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하물며 금시조라도 적수가 될 수 없네. 사공 형님도 두려워하며 꺼리실 정도였으니, 무슨 계책을 써야 막을 수 있겠는가?”²¹⁾

위의 본문은 <남가록>의 후반부 군담 중 염부에서의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던 석천장의 발언 부분이다. 석천장은 전반부의 공훈이 사실상 최석홍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 전투에서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3석은 처음 남가국 내 반란 평정 중에서는 송기칙의 요술에 걸려 패하고 염부의 전투에서는 장풍낭을 도둑맞는 바람에 계책이 실패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는 그동안 그들을 통솔해왔던 최석홍이 선탈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석홍의 부재와 함께 시작된 <남가록>의 후반부에서 그의 위치를 대신하는 인물이 바로 천하백이다.

천장 등이 패했다는 기별은 곧 서울에 전해졌다. 왕은 당황해 몸 둘 곳을 몰라하다가 급히 대신들을 불러 일을 의논했으나 감히 선뜻 나서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 천하백은 3석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칼을 빼서 책상을 찍으며 말했다.

20) 최석홍은 다른 삼형제들이 장화화의 계교에 빠져 곤욕을 당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며 처음 만나게 된다. 전체 사건에서 최석홍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3석과 다르다. 서사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3석의 활약은 결국 한계를 드러낸다. 이들은 이후 최석홍이 등장해 통솔한 뒤에야 다시 빛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 강경미는 “지략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최석홍을 제외하면 남은 세명의 개성이나 특징은 쉽게 변별되지 않”으며 나머지 3석의 경우 “김종직과 최석홍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대장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경미(2014), 앞의 논문, 16쪽.

21) <남가록>, 548쪽.

“어떤 요물이 이렇게 날뛰는가? 내가 마땅히 한칼로 이 도적의 살을 발라 맹세코 궤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고는 소를 올려 전쟁에 참여할 것을 원했다.²²⁾

천하백은 3석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갈 것을 다짐한다. 결국 대도독이 되어 출전한 그녀는 3석을 구하고 반란을 진압한다. 이러한 활약은 전반부에서 최석홍이 가진 구원자로서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이후 3석이 염부의 전투에서 죽을 위기에 빠질 때 직접 가서 그들을 구해내는 인물 또한 천하백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 한편, 그녀가 받은 대도독의 지위는 3석을 휘하 장수로 부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별안간 정탐군이 와서 보고했다. “남가왕이 천하백을 대도독으로 삼았는데, 금방 군사를 거느리고 당조할 것입니다.” 기척이 웃으면서 말했다. “남가국의 인물이 여자 한 명밖에 없다는 말이나? 내가 사로잡아서 암채부인으로나 삼아야겠다.” 그리고 흰 비단 한 폭에 제 모습을 그려서 천하백의 진중에 보내고, 무자한 군사들에게는 단지 손바닥이나 비비며 기다리다가 산채로 잡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문득 3석의 진영에서 싸우지는 전갈을 보내왔다. “내일 승부를 결정짓도록 하자” 기척이 웃으면서 말했다. “천장 등도 한때를 풍미하던 호걸들인데 아녀자의 통술을 받으니 부끄러웠겠구나! 그래서 천하백이란 여자가 오기 전에 이 글을 보낸 것이로군, 그러나 이거야말로 목숨을 재촉하는 일이다.”²³⁾

송기척은 천하백이 대도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아녀자의 통술을 받을 3석을 비웃는다. 이러한 송기척의 태도는 여성인물에 대한 기존의 태도이기도 하다. 천하백과 그의 자매들은 이미 전전반부에서 전투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영웅은

22) 〈남가록〉, 480쪽.

23) 〈남가록〉, 486~487쪽.

아니었다. 남가국의 임금 또한 이들 세 자매가 아닌 3석에게는 출전을 명하지만, 이후 출전을 청하는 천하백의 상소를 보고는 쉽게 맡기려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으로서 군무(軍務)를 주관하는 것에 대한 당대 사회의 부정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천하백은 끝내 대도독이 되어 3석을 통솔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다. 이처럼 기존의 조력자적 역할에서 더 나아가 통솔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천하백의 모습은 전반부 최석홍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천하백은 부재한 최석홍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그가 가진 위치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천하백의 활약은 결과적으로 그녀 자신의 정절을 입증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녀로 인해 두 번이나 목숨을 건진 3석은 염부에서 전해들은 일을 전하면서 정절 모해의 전말을 밝히게 된다. 천하백은 결국 타의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집안에 돌아와 다시 가문의 일원이 된다.

“3태위께서 오셨습니다.” 세 자매가 매우 놀라 문을 나가 맞이하였다. 겨우 자리에 나아가 인사를 마쳤는데, 황태위가 당(堂)에서 내려가 버선 발로 관을 벗고 사죄를 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석태가 지각이 없어서 형수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형수님께서 품으신 원한이 이에 이르렀으니, 바라건대 제 등을 3백 대만 때려 주십시오.” (중략) 백부군 세 자매는 북쪽을 향해 사은하고 차례로 3관의 도장을 풀어 놓은 다음 가마에 올라 옛집으로 돌아왔다. 지현과 난읍 두 공주, 용궁의 세 공주, 유부인 등은 10리밖에 장막을 쳐놓고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현과 난읍 두 공주는 두렵고 부끄러워 사죄했으나, 세 자매는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가엾게 여기며 슬퍼했다. 두 공주도 다 풀어져서 공경하고 진중히 여기는 것이 두 배나 더해졌다. 나머지 부인들의 옛정과 새로운 기쁨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²⁴⁾

후반부 군담이 마무리되면서 천하백 자매는 3관의 장수직을 내려놓은

24) <남가록>, 565~567쪽.

후 집으로 돌아온다. 지위로만 본다면 이러한 모습은 전반부 마지막에 상공의 첩이 되었던 전반부의 결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는 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돌아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앞서 정절모해 때 그녀의 출신을 두고 의심하고 비난했던 황석태와 공주의 사과는, 천하백이 하층여성으로서 받아야 했던 비판을 극복하고 비로소 집안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후반부 마지막에서 하층여성영웅인 천하백 자매는 전반부의 중심 인물이었던 남성영웅과 상층여성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 와중에 천하백은 자신이 대신 수행했던 남편의 호칭을 받으며 그와 동일한 위상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서 말했다. “만일 하늘에 계신 형님의 영령이 몰래 오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장났을 것입니다.” 3태위가 일시에 일어나 백 부군에게 절하며 말했다. “형수님은 곧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은혜가 첫째는 형님 덕분이고 둘째는 형수님 덕분입니다.”²⁵⁾

남편 최석홍을 대신해 남가국과 명부에서 활약한 천하백은 모든 것을 알게 된 3석에게 “형수님은 곧 우리의 형님”이라는 칭송을 받는다. 이러한 3석의 태도는 서사 속 천하백에 대한 바뀐 호칭과도 관련이 있다. 〈남가록〉 후반부를 보면 천하백의 모든 활약이 끝난 뒤 그녀를 지칭하는 호칭이 백낭자(白娘子)에서 백부군(白府君)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부군(府君)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한 존칭으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²⁶⁾ 이러한 변화 또한 천하백이 남편 최석홍의 위치를 완전

25) 〈남가록〉, 566~567쪽.

26) 이 호칭에 대해 번역자 조용호는 “부군(府君)은 본래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히 이어받았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최석홍의 위치를 계승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그의 ‘첩’이라는 점이다. 최석홍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²⁷⁾ 하지만 실제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은 어린 나이로 언급되며 후반부에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최석홍의 의형제들인 석천장, 석회주, 황석태 또한 전반부 군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통솔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는 영웅들로 나올 뿐이다. <남가록>은 부재한 최석홍의 역할을 아들도, 의형제도 아닌 그의 첩 천하백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3. 하층여성영웅의 위상 정립 과정

<남가록>서사의 흐름에 따른 천하백의 위상 변화는 그녀가 대표하는 ‘옥녀산의 여산적들’에 대한 위상 변화로도 읽을 수 있다. ‘하층여성’이자 ‘여성영웅’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 이들은 성별 및 신분상의 불리함으로 인해 ‘잉첩’이라는 제한된 자리에만 머무른 채 가부장제 사회 안에 온전히 자리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사 후반부에서 그들은 기존의 남성영웅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간다. 이에 천하백이 자신의 위상을 정립해나간 과정을 살펴보면 서 하층여성영웅인 그녀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나갔는지를 분석

대한 존칭으로 쓰인다. 그러나 존자(尊者), 장자(長者)의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므로, 비록 천하백이 여성이기는 하지만, 존자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무방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만성(2008), 위의 책, 560쪽, 각주 812).

27)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덕(德)으로 난읍부인의 소생이었고, 둘째는 인(仁)으로 천하백의 소생이었는데, 모두 나이가 세 살에 불과했다. 지현부인은 다만 한 명의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향(香)이라고 했으며 아직 포대기 속에 있었다.” <남가록>, 427쪽.

해보고자 한다.

1) 영웅적 수행 능력의 축적과 전환

천하백 자매는 하층 신분의 여성이자 무예를 익힌 영웅이다. 본문에서 이들은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각 산의 산적이 된 인물로 등장한다.

이 셋은 모두 옆구리에 산을 끼고 바다를 뛰어넘는 기력이 있고, 《육도(六韜)》와 《삼략(三略)》에 정통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했다. 어렸을 때 선녀를 만나 신이한 방술을 배웠는데, 일장홍은 바람을 부는 것을 잘했고, 금옥 저는 안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잘했고, 천하백은 평지에 바다를 옮겨 놓을 수 있었다.²⁸⁾

세 자매들은 전반부와 후반부 군담 모두에서 영웅적 능력을 드러냈다. 이는 재주와 기예가 절대적인, 영웅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그녀들의 능력은 하층여성인 그녀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본 바탕이 된다. 특히 천하백은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지장(智將)’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 ① “황 장군이 이미 공성계에 빠졌으니 근심거리의 첫 번째는 분명 양식일 것이다. 세 산에 쌓은 양초를 헤아려보니 10만여 석이 넘는데, 어떻게 양식을 좀 갖다줄 수 없을까?” 금옥저가 말했다. “이 피가 참으로 옮기는 하지만, 어떻게 무사히 운반할 수 있겠어요?” 천하백이 말했다. “저한테 한 가지 피가 있어요. 빨리 양거(糧車) 3백 대를 꾸려서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때에 몰래 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각각 신술을 써서 바람과 안개와 물을 만들고 적들을 삼시간에 흘려 버립니다. 그러면 모두들 놀라 두려워할 것이니, 100만의 무리라도 속아 넘어가게 할 수 있

28) 〈남가록〉, 302쪽.

을 거예요. 저들의 성 아래에 도착하게 되면 소위 해자의 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맨발로 물위를 걷는 술법이 있으니 염려할 것도 없어요.”²⁹⁾

- ② 적송관과 거리가 2백 리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 사인에게 밀서를 가지고 천장 등에게 보내어 깨우쳐 말했다. “어리석은 형수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송적과 교전하지 마십시오. 적은 온갖 신술을 써서 바람을 부리고 천 등을 치며 올 것이니, 다만 앞쪽의 흰 기운을 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적이 만약 패배해 도망가면 급히 쫓아 은행나무 아래의 셋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수십 리를 못 가서 옥산관에 도착할 것이니 곧장 관문을 깨고 들어가십시오. 적이 다시 도망치면 모든 관과 양초를 탈환해 얻고 그 이상은 추격하지 마십시오. 추격하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또 일장홍을 불러 계책을 주었다. “이곳과 옥산관의 사이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큰길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꾼들이 다니는 셋길이에요. (중략) 일장홍과 금옥저는 명을 받들고 갔다. 천하백 자신도 스스로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는 감성을 향해 나아갔다.³⁰⁾

천하백은 ①〈남가록〉 전반부에서도 포위를 뚫고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 도족보수지술(徒足歩水之術)을 이용한 계책을 낸 장본인이었다. 천하백 자매의 재능은 황석태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포위당한 와중에 양곡을 가져다주는 군공을 세우는 등의 활약을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세 자매의 재능은 정도(正道)가 아닌 사도(邪道)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결국 전반부에서 이들은 결국 ‘더 능력이 좋은’ 다른 이들에게 제압되고 만다. 처음 황석태에 대한 그녀들의 공격은 이고의 도움으로 파훼되며, 이후 조력자가 되어 양초를 운반했을 때도 곧 장초초에게 발각된다. 이처럼 옥녀산의 여도적들이 쓰는 재능은 결국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속이는 꾀’에 불과한 것으로 그려진다.³¹⁾ 그 결과 ‘한계가 있는’ 그녀들의 힘은 남성영웅에게

29) 〈남가록〉, 319~320쪽.

30) 〈남가록〉, 485~486쪽.

귀의하여 그들을 돕는 방식으로만 수용된다.

그런데 후반부의 천하백은 ‘지장’으로서의 면모는 비슷하나 더 강해진 모습으로 등장한다. 본문 ②에서처럼 천하백은 3석을 통솔하며 국가의 변란을 막아내고, 염부에 가서 3석을 구하고 장화화와 요신을 다시 무찌르게 된다. 후반부 군담에서 천하백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최석홍을 대신하여 3석을 구원하는 입장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활약의 기반에는 전반부에서부터 이어진 그녀의 능력뿐 아니라 최석홍이 남긴 《병학요람(兵學要覽)》의 영향이 크다. 그의 병법서를 익힌 천하백의 계획은 이제 쉽게 파훼되거나 제어되지 않는다. 이처럼 천하백의 영웅적 능력은 사건의 진행과 함께 점차 강해지면 전후반부 서사 속 그녀의 자리를 획득하고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 상층 권위 및 규범의 전략적 전유

(1) 상층 권위의 활용과 권력의 위임

〈남가록〉 후반부에서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천하백 자매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행하는 전략이 다각화된다는 점이다. 천하백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편, 가부장제 질서를 이루는 여러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가록〉 후반부에서 천하백은 세상을 떠난 남편 최석홍과 황제의 권위를 활용하여 권력을 획득해간다.

31) “대개 환술이라는 것은 삼시간에 사람들을 놀라게 해 막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 만약에 당한 사람이 엿보고 알게 되어 예물발지술(稜物撥地術)을 쓰게 된다면 행할 수 없는 까닭에 별안간에 언뜻 속이는 꾀일 뿐이다. 장초초는 양거가 성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요술을 쓴다고 여겨서 소와 말의 피와 똥 그리고 그 밖의 더러운 것들을 사방에 뿌렸다. 그래서 바람과 안개와 물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니 세 사람의 여장군도 성을 나가지 못하고 또한 모두 석태의 부하가 되어 머무르게 되었다.”〈남가록〉, 321~322쪽.

- ①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떠나면 사람들은 ‘그들이 음란한 천것이라서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천하백 하나가 정체를 드러내니 셋이 다 발이 아프도록 새것을 버리고 옛집으로 달아났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옥에 티처럼 같아도 없어지지 않는 제 흠결이 언니들께도 피할 수 없는 옥을 먹게 만드는 것이지요.”³²⁾
- ② “저희가 있었던 세 개의 관은 동남쪽의 요충지로서 산과 바다를 울타리와 문처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승리를 아뢰게 된 것이 비록 전하의 신령스러움으로 인한 것이오나, 앞으로도 국경을 막는 일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침이 감히 아뢰옵니다. (중략) 원하옵건대 승리를 얻은 군대의 위엄을 가지고 중요한 변방을 지키며 지세의 이로움을 꿰뚫게 한다면, 조정과 국가는 학을 빌려주는 은택을 넉넉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침은 여우 머리의 사사로운 마음을 이루고자 감히 높으신 폐하의 심기를 범했사옵니다.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 간절히 비옵나이다.” (중략) 왕은 매우 슬퍼하며 천하백을 옥산군(玉山君)으로 봉하고 금옥저를 저산군(猪山君)으로 봉하고 일장홍을 적송군(赤松君)으로 봉해 본래 관을 지키던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둔하며 지키게 했다.³³⁾

천하백의 정절이 의심받게 되자 자매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포상, 즉 ‘상충 가문의 첩’이라는 자리를 포기한 채 다시 옥녀산 일대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천하백은 두 언니의 제안을 반대하면서 본문 ①과 같이 자신들을 “음란한 천 것”으로 바라볼 시선을 의식한다. 이는 천하백에게 닥친 정절모해가 사실상 그녀들의 출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사자인 그녀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천하백은 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속할 만한 방법을 모색한다.

천하백이 선택한 방법은 황제의 권위에 기대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32) <남가록>, 473쪽.

33) <남가록>, 494~498쪽.

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황제가 세운 장수로서 옥녀산에 다시 돌아간다. 그녀는 군공을 세운 뒤에야 비로소 가문을 떠나게 된다. 본문 ②에서 그녀는 상소를 통해 그동안 억울함을 토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청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황제에게 옥녀산 일대를 지키는 ‘장수’의 직책을 요청한다. 이때 3관의 장수라는 공인된 위치는 가문의 일원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들이 찾은 또 하나의 자리가 된다. 또한 이는 전반부 군담의 끝에서는 얻지 못했던 군공에 따른 사회적 지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후 세 자매는 자신들에 대한 모해가 해결될 때까지 옥녀산 일대의 권농관이 되어 지내게 된다.

이처럼 황제나 가부장과 같은 상층 권력에 힘입어 자신의 자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모습은, 천하백의 출전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정절모해 이후, 그녀는 가문의 죄인으로 자처하는 와중에도 직접 나가 송기척의 반란을 진압하길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최석홍과 황제의 권위를 힘입어 이를 가능케 한다.

그러자 왕께서 말씀했다. “집은 자매들이 용병에 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차마 여자에게 임무를 맡길 수는 없다. 어찌 대답하기가 이와 같은가?” 공옥이 아뢰었다. “천하백은 최 사공의 측실(側室)로 사공이 전한 기술의 진수를 거의 깨우쳐 얻었을 것이옵니다. 또 듣건대 백량은 주야로 그것을 갈고 닦는다고 하옵니다. 만일 바탕에 쌓은 것이 없으면 어찌 감히 큰소리를 치겠사옵니까? 옆드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시험 삼아 물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로 패를 보내어 백량을 불렀다. (중략) 왕이 매우 기뻐해 곧장 세 자매에게 명령을 내려 각각 철기병 3천을 거느리고 가게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천하백 등은 머무르면서 나아가지 않았다. 왕이 들고는 공옥에게 말씀했다. “천하백이 입으로는 큰소리를 치더니 마음으로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소. 어찌 행동이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공옥이 아뢰었다. “천하백의 행동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오라, 전하께옵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옵니다.” 왕이 말씀했

다. “짐은 이미 가기를 재촉했소” 대답해 아뢰었다. “가기를 재촉하신 것이 가지 못하게 한 것이옵니다.” 왕이 그 연유를 묻자 대답했다. “천하백은 대장의 재목인데도 이름도 없는 지위를 주어 전장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즐겨 가지 않는 까닭이옵니다.” 왕이 말씀했다. “내가 실수를 했구려.” 그러고는 곧 황문시랑(黃門侍郎) 장구(張耆)에게 명해 대도독(大都督)의 인부(印符)를 가지고 상춘헌으로 가게 해 명을 내렸다. “성곽 밖의 것은 장군이 맡아 하시오. 명령을 내리건 내리지 않건 간에 오직 상벌을 뜻대로 하시오.” 천하백은 절하며 인부를 받고, 그날로 궁궐로 나아가서 사유했다. 그리고 즉시 출발했는데, 위의(威儀)의 엄숙함과 호령의 엄정함은 한신(韓信)과 주아부(周亞夫)에게 뒤지지 않았다.³⁴⁾

천하백이 익힌 최석홍의 『병학요람(兵學要覽)』은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키운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인 최석홍의 권위 그 자체가 된다. 왕은 본문에서처럼 “자매들이 용병이 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천하백에게 임무를 맡기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천하백이 최석홍의 병법서를 익힌다는 소리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 이는 그녀의 출전이 전반부의 영웅인 남편 최석홍의 이름에 힘입은 것임을 알려준다.

천하백은 출전에 앞서 ‘대도독’의 지위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활용하고자 한다. 천하백은 군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황제가 내린 ‘대도독’의 지위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가 ‘영웅’으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줄 사회적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도독의 인부를 받은 뒤에야 그녀는 움직이게 된다. 이처럼 천하백의 활약은 ‘정절의 의심을 받는 첩’이 행하는 ‘규방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과 황제의 권위를 바탕으로 어떠한

34) <남가록>, 480~484쪽.

방해 없이 진행된다.

이는 그녀가 염부에서의 활약했을 때도 비슷하다. 그녀는 3관의 장수로 서 옥녀산에 칩거하는 도중 3석의 구원을 청하는 남편 최석홍의 명령을 만나게 된다.

최 사공이 갑자기 앞에 와서 물었다. “옥산에서 노는 것이 즐겁소?” 백 부군이 놀라고 당황하여 엎드려 울면서 말하였다. “천첩이 아뢰지도 못하고 갑자기 지아버의 집을 떠나왔으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낭군께서는 저를 구해주십시오. 제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공이 말했다. “슬픔과 기쁨과 괴로움과 즐거움은 모두 이전에 정해진 것이라오. 남자의 운명 안에는 전생에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무고를 받은 것이나, 오래지 않아 저절로 풀릴 것이오. 지금 우리 세 아우가 바야흐로 날치와 재우와 장화화 세 도적들에게 곤핍을 겪어 철옹성에서 불에 타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소. 남자는 한번 가는 것을 아끼지 말고 가서 구해주시오.”³⁵⁾

천하백은 최석홍의 명령과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최석홍의 정실부인이자 전반부 혼사장애담의 주인공이었던 두 공주보다도 더 그의 뜻을 계승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남편의 최석홍의 명령을 보고 “지아버의 집을 떠나 옥녀산으로 돌아간”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면서도 ‘제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며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한다. 이때 모든 것을 아는 최석홍의 명령은 ‘무죄한 첩’이라는 천하백의 위치를 보증하는 존재가 된다. 또한 염부의 3석을 구해달라는 남편의 요청 자체는 혼인한 여성임에도 계속해서 군대를 이끌고 무예를 드러내는 천하백의 행동을 서사 속에서 다시 한번 정당화한다.

35) 〈남가록〉, 563~564쪽.

(2) 상층 규범의 전유와 정당성의 확보

〈남가록〉 후반부의 정절모해담은 천하백으로 대표되는 하층여성영웅에 대한 전반부의 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시선에 맞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의내리고자 하는 천하백 자신의 행동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 그녀는 황제나 남편의 권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찾아가려 노력하는 한편, 유가 가부장사회의 규범 자체를 내재화함으로써 이를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설. ① [백 낭자는 사공이 돌아가신 뒤부터 화려한 꾸밈새는 버려두고 오로지 흰 옷만을 입었다. 또 예를 각듯이 해 두 공주를 섬기고 비복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대하니 온 집안이 온화했다. 여섯 부인과 자신의 친자매와 더불어 때때로 왕래하는 외에는 안채로 통하는 문을 엄히 닫고 있어서, 발길이 한 번도 집 밖으로 향한 적이 없었다.] (중략) ② [최 사공은 손수 쓴 30여 편으로 된 《병학요람(兵學要覽)》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모두 천지인(天地人) 3재(三才)의 진법(陣法)이었으며 승리를 이끌고 군사를 통솔하며 장수를 부리는 비결이었다. 백 낭자는 새벽이면 일어나 열심히 익혔는데, 다른 사람들이 간혹 비난해 말했다. “여자의 일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위주로 하는 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요. 군무(軍務)와 같은 것은 남자의 사업이니 남자가 익히는 것은 그른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백 낭자가 답했다. “천하의 모든 일은 남녀를 막론하고 올바름을 잃지 않으면 되지요. 손(孫) 부인이 병법에 관한 학문을 좋아하고 낭자군(娘子軍)이 종군하는 것이 어찌 후세에 기롱할 거리를 남겨주는 일이겠습니까? 난(亂)을 살피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장부의 일이지만, 여자라고 또 나라를 위해 기개를 떨치는 것을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물며 내가 익히는 것은 사공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공께서는 몸은 강호에 계시면서도 마음은 대궐에 걸어 두셨으니, 내 천하고 둔한 몸이나마 사공께서 남기신 뜻을 사모하고자 하는데

누가 옳지 않다고 합니까?” 이 말을 두 공주가 전해 듣고 존경과 사랑을 극진히 했으며, 금옥저와 일장홍도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것을 한탄했다.]³⁶⁾

〈남가록〉 후반부는 최석홍의 죽음(선탈) 뒤 그녀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시작한다. 본문 ①에서처럼 “화려한 꾸밈새는 버려두고 오로지 흰 옷만을 입”는 차림은 남편의 죽음 이후 색(色)을 가린 열녀의 모습과 같다. 이는 남편을 구하는 시를 지어 걸어두었던 전반부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마치 ‘열녀’의 전형적 모습으로 묘사되는 단락에 이어서(①) 그녀가 남편인 최석홍이 남긴 『병학요람』을 익힌다는 사실이 서술된다는 점이다.(②) 해당 본문이 등장하는 제28회의 처음은 천하백의 모습 묘사로 시작하여 정절모헤에 휘말리게 된 두 종의 소개, 그리고 최석홍이 남긴 글을 보며 군무를 익힌다는 서술이 이어서 나온다. 이러한 배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긍정될 수 없는, ‘여성의 군무 학습’을 마치 ‘열녀’가 할 수 있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의도는 여자의 몸으로 군무를 익히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천하백의 대답과도 이어진다. 천하백은 『병학요람』이 “사공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가 “사공께서 남기신 뜻을 사모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른바 ‘남성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죽은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는 명분을 통해 이를 하나의 열행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이때의 『병학요람』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자의 일’을 하는 ‘하층여성’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된다.

석태는 날치가 괴이한 짓을 할 것을 알고 급히 상자를 열었으나 주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놀라 열쇠를 땅에 떨어뜨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우리는 모두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천장과 화주는 한마디도 못하고 군사

36) 〈남가록〉, 442~444쪽.

들에게 퇴각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앞에 선 군사들이 발꿈치를 돌리기도 전에 붉은 이미 머리까지 다가왔다. 큰바람이 닿는 곳마다 마른 풀 더미와 마른 나뭇가리는 모두 불덩어리가 되어 하늘을 찌르고 날아올라 곧장 철옹성을 향했다. 너나 할 것 없어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만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날 뿐이었다. 그때 어떤 나이 어린 여장군이 한 필의 설모구(雪毛駒)를 타고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 빠르기는 마치 유성과 같았는데, 말 위의 장수가 부채를 들어 한번 휘두르니 큰바람이 즉시 반대 방향으로 불며 불덩어리를 몰고 철옹산 골짜기를 향해 달려갔다. 잠시 후에 숲속에 숨겨 두었던 엄초와 화약이 일제히 폭발해 산골짜기를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이고 고흠의 백만 군사들을 삼시간에 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불빛 속에서 어떤 노인 하나가 날아올라 달아났다. 그러자 여장군이 어떤 물건을 던졌다. 그것이 노인의 몸에 붙어서 두 날개를 묶으니 노인은 도로 불 가운데로 떨어졌다. 여장군은 땅을 얼핏 보더니 말고삐를 돌려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 사라졌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보름달 같고 허리는 부드러운 버들가지 같았다. 나무 비녀를 꽂고 상대로 만든 치마를 입었는데 머리는 빗지도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³⁷⁾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용인되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은 그녀가 가장 ‘남성적’인 활약을 펼칠 때에도 유지된다. 3석을 구할 때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보름달 같고 허리는 부드러운 버들가지 같았다”는 묘사에서처럼 일반적인 장군의 모습이 아닌, 여성의 모습으로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나무 비녀”, “베로 된 치마” 등의 묘사를 덧붙여 섹슈얼리티적 성격이 소거된, 정숙한 규방 여인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천하백은 ‘여성영웅’으로서의 자신의 행동을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아내의 일’로 재정의하고, 스스로 열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주변 이들에게 믿음을 얻는다. 이 과정은 이후 모해 과정에서도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얻게 만든다.

37) <남가록>, 558~559쪽.

- ① 용왕의 주궁에 공주가 강개해 말했다.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우리가 백 낭자와 함께 살아온 지가 10년이나 되었으나, 쌀 반 톨만큼도 바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백 낭자가 쓴 누명은 곧 제가 쓴 누명입니다. 공주께서는 살피 주시기 바랍니다.”³⁸⁾
- ② 유부인이 말했다. “한번 소인으로 태어나면 잠시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인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지만, 백 년을 변치 않을 군자라면 잠깐의 의심으로 군자다움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언뜻 보아서서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인데, 어찌 백 낭자의 평소 몸가짐을 가지고 공평히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인이라면 비록 감추고 피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군자라면 비록 속임수로 엮어 넣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그 계책은 비록 무고하는 것보다 교묘하나 그녀의 끈은 자취는 진실이 아님을 그대로 드러내니, 공주께서는 다시 세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³⁹⁾
- ③ 홍량과 저랑도 비너를 풀고 섬돌에 내려와 땅에 엎드려 고했다. “동생의 몸가짐은 해와 달처럼 증명할 수 있으나, 동생이 만난 일은 천지에 용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엎드려 비오니 공주께서는 저희들의 직첩을 삭탈하시어 동생의 죄를 속죄하게 하소서.” 그러고는 엎드려 일어나지 않고 눈물을 비 오듯이 쏟았다.⁴⁰⁾

본문을 보면 평소의 천하백이 보여준 “쌀 반 톨만큼도 바르지 않은 것이 없는” 몸가짐 덕분에 그녀의 정절에 대한 모해에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앞서 그녀의 행동에 기반한 것이다.⁴¹⁾ 이처럼 규범을 내면화하 그녀의 모습 자체는 결과적으로 그녀

38) 〈남가록〉, 462쪽.

39) 〈남가록〉, 463~464쪽.

40) 〈남가록〉, 464쪽.

41) 이러한 모습은 정절모해를 당한 후 죄인으로 자처했을 때의 묘사에서도 유지된다.

의 원 출신에서 비롯된 모해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게 된다. 더 나아가 ‘여성 영웅’으로서의 활약을 통해 정벌모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녀의 이후 행동 가지도 수용할 수 있게 만든다.

4. 결론

조선 후기 소설 속 ‘여성영웅’이라는 캐릭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대 현실에서 불가능한 체제 위반적 존재임에도 다양한 소설군 속에서 꾸준히 등장한다. 이는 남성사대부층을 대상으로 한 한문장편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옥수기〉의 진월아, 〈옥루몽〉의 강남홍, 〈육미당기〉의 백운영과 같이 한문장편소설 속 ‘여성영웅’들은 남성주인공의 현세적 성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를 보인다.⁴²⁾ 〈남가록〉 전반부에서 드러난 옥녀산 세 자매의 형상 또한 이와 비슷하다. 그녀들은 황석태의 수하가 되어 그의 군공을 돕는 조력자로 활약하고, 4석은 이들의 활약을 거름삼아 국가의 중신이 된다. 그러나 서사 후반부, 천하백이 ‘섬길’ 대상이자 나머지

“백 낭자는 육영궁에서 돌아온 후 빗질과 화장을 아예 폐하고 병풍과 휘장을 철거했으며 본체의 안방에 기거하지 않고 후미진 방으로 옮겼다. 또 짧은 소매의 옷을 입었으며 거칠고 성긴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칭해 비록 언니들의 집이라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남가록〉, 465쪽.

- 42) “이들의 영웅성 발휘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그것이 남성주인공의 이상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의 뛰어난 영웅성은 왕자진의 후신인 김소선이 좌절을 겪지 않고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며 작가 서유영의 욕구가 주로 백운영을 통해 구현된다는 견해나 강남홍이 양창곡의 입공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귀공명의 실현에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견해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진월아 역시 가유진의 현세적 이상 실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지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358쪽.

3석을 통솔했던 남편 최석홍이 세상을 떠나고, 가문속 자신의 위치를 흔들리는 정절 모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녀는 기존의 한문장편소설 속 전형적인 여성영웅과 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후반부 서사 속 그녀는 규범을 내세우며, 그 결말 또한 가부장제적 가족제도 속으로 귀속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체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천하백의 욕망 속에서 새롭게 재맥락화된다. 죽은 남편의 뜻을 받든다는 천하백의 열은 군무를 익히기 위한 명분이 되며, 그녀가 돌아가게 되는 가문 속 자리는 3석과 정실부인의 존경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는 그녀를 제어하는 ‘물리적 가부장’은 부재한 채로, 그녀가 활용가능한 가부장의 권위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상은 “자신들을 구속하며 여성성을 강요하는 가족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탈가정, 탈부부관계의 성향을 드러”⁴³⁾내는 홍계월, 방관주, 이경경 등의 여성영웅과도 유사한 지점으로 보인다.⁴⁴⁾ 물론 〈남가록〉 속 최석홍의 죽음은 여성영웅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작가적 관심에 따른 설정이라기보다는, 죽음 뒤에도 타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갈공명의 캐릭터를 반영한 결과에 더 가깝다. 그러나 이후 최석홍을 대체한 천하백이 가진 ‘하층/여성’이라는 하위주체적 면모는 이 소설의 이념성에 균열을 낸 원인이 된다.⁴⁵⁾

43) 이지하(2008), 위의 논문, 359쪽.

44) 또한 죽음의 대상은 다르지만 ‘가부장’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이는 여성영웅소설 속 서사적 장치로 활용되는 ‘부모의 부재’와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조현우에 따르면 여성영웅소설에서 “부모의 부재는 여성영웅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이다. 부모가 살아 있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반대나 남장의 계기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부재하는 것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통합·균열의 문제」, 『韓國古典研究』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15~216쪽.

45) 전반부 최석홍의 대체자로 3석이 아니라 천하백이 선택된 이유로는 그녀가 최석홍의 첩일 뿐 아니라 천하백이 가진 지장(智將)으로서의 특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해인은 “하층여성에게는 이념성은 상층의 지배 질서를 전유해 자신을 타자화한 남성 작가의 시각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이들은 본래의 이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맥락을 변환시키는 적극적인 전유를 펼치며 상층의 지배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인물이다.”⁴⁶⁾라고 지적하면서 남성 문인 작가에 의해 창조된 하층여성의 이념성이 오히려 작가의 남성중심적 시각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천하백 또한 마찬가지이다. <남가록> 전반부에서 성적대상이자 조력자적인 존재로 그려진 하층여성이었던 천하백은,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열녀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담지한 여성으로 변화한다. 그러면서 상층의 규범과 권위를 활용해 오히려 기존에는 오를 수 없었던 위상으로까지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천하백은 이념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체제 지향적 인물이지만, ‘하층’, ‘여성’이라는 존재가 가진 위반성으로 인해 가부장제적 이념 자체를 재맥락화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대상이자 조력자에서, 열녀이자 통솔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천하백은 ‘여성영웅’을 정의하는 <남가록> 전반부의 시각이 후반부로 갈수록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남편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남편의 권위’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런 점에서 <남가록>은 남성사대부가 주 향유층이었던 한문장편소설에서 하층여성어 어떤 방식으로 ‘영웅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소설의 전체 구조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후고로 넘기도록 하겠다.

46) 유해인,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형상과 소설사적 위상- 강남홍(江南紅)·향랑(香娘)·조옥(楚玉)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57쪽.

참고문헌

- 최만성, 『南柯錄』 영인본 (조용호, 『남가록 연구』, 박이정, 2009, 1~329쪽.)
- 최만성, 조용호 옮김, 『남가록, 회화나무 아래서 봄꿈 한 자락』, 지만지한국문학, 2024, 1~641쪽.
- 강경미, 『南柯錄』의 서술상 특징과 작가의식, 『우리어문연구』 50, 우리어문학회, 2014, 11~37쪽.
- 유혜인,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형상과 소설사적 위상- 강남홍(江南紅)·향랑(香娘)·초옥(楚玉)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230쪽.
- 이지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353~379쪽.
- 장예준, 「南柯錄 서문에 나타난 문장론과 소설론의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2015, 221~254쪽.
- _____, 「19세기 소설론의 장場과 그 담론들 -소설 서문과 평비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0,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6, 129~161쪽.
- 조용호, 「〈南柯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355~389쪽.
- _____, 「한문소설 〈남가록(南柯錄)〉에 나타난 종교사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287~314쪽.
- _____, 「고전소설 南柯錄의 비교문학적 연구 -중국소설 三國演義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5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111~144쪽.
- _____, 「고전소설 속 서사적 지연의 제 양상」, 『韓國古典研究』 4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13~149쪽.
-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봉합·균열의 문제」, 『韓國古典研究』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07~244쪽.
- 최윤희, 「남가록의 유형성 탐색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314~315쪽.

ABSTRACT

A Study of Cheon Habek, a Lower-Class Female Hero
in *Namgarok* (南柯錄)
- Focusing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er Status
within the Patriarchal Order

Park, Hea-in

This article examines CheonHabeak in *Namgarok*, a Long Novel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in order to explore how a Lower-Class Female Hero secures and consolidates her position within a patriarchal society. As a Female Character who is simultaneously a Lower-Class Woman, CheonHabeak embodies the tension between social marginality and heroic agency.

In *Namgarok*, CheonHabeak first appears as one of three sisters living as bandits in the Oknyosan region, positioning her outside the patriarchal order. Although she demonstrates the qualities of a Female Hero, the narrative frames her and her sisters as women seeking marital ties with established male heroes. Consequently, their final reward culminates in their becoming secondary wives to elite male figures. In this context, concubinage functions as the only institutional position through which a Lower-Class Woman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patriarchal system, while remaining an inherently unstable and socially vulnerable status.

In the latter half of the narrative, however, CheonHabeak transcends this limited position. After the death of her husband, Choi Seokhong, she succeeds him as Grand Commander and emerges as both savior and leader. Through these achievements, she receives apologies from royal and elite male figures, thereby attaining full recognition within the patriarchal order and inheriting her husband's authority.

Thus, in *Namgarok*, CheonHabeak rises from a marginalized Lower-

Class Woman to a recognized Female Hero. Her practice of female virtue (yeol) is not merely an act of submission but a strategic performance that enables her to appropriate upper-class authority and normative values. By mobilizing her heroic competence alongside the symbolic authority of male power, CheonHabeak consolidates her status within the existing system. Although she appears to be absorbed into the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she simultaneously exposes its ideological tensions, demonstrating the narrative possibility for a Lower-Class Female Hero to be acknowledged as a legitimate heroic subject.

Key Words *Namgarok*, Long Novel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CheonHabeak, Lower-Class Female Hero, Lower-Class Woman, Female Hero, Female Character

논문투고일: 2026.01.16.

심사완료일: 2026.02.03.

게재확정일: 2026.02.05.